

성폭력은 다른 범죄피해와는 달리 신체적, 경제적 손상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 후유증을 남긴다. 더구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일차적인 피해와 더불어 피해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귀인하는 이차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신고함으로써 신분이나 비밀이 노출되어 경찰, 검찰 및 주위 사람들로 부터 받는 수치심과 상처를 감내해야 하는 것 보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피해여성까지도 자신에게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비난하면서 자기 비하를 경험한다는 것이다(Janoff-Bulman, 1979).

이 같은 피해자 비난(blame of victim) 현상은 불행한 사건의 발생에서 그 역경이나 불운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 쪽으로 돌리는 경향을 말한다. 이런 현상의 기저에는 일반인들이 지니고 있는 공정한 세상(a just world)이라는 신념이 작용한다. 공정한 세상 신념이란 세상은 공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발생하면 그 사람이 그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고, 그에게 나쁜 일이 발생해도 그가 그럴만한 이유를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신념이다(Lerner, 1980). 이러한 피해자 비난현상은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Carli, 1999).

일반인들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현상의 근간에는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외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 성태도(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Glick & Fiske, 2001)와 강간에 대한 남성들의 잘못된 인식(이석재, 최상진, 2001)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Glick과 Fiske(1996, 2001)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ambivalent sexism theory)에 따르면 성차별 태도는 적대적

성차별(hostile sexism)과 온정적 성차별(benevolent sexism)이라는 두 가지 독립적 태도로 구성되어 있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본다. 여기서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이 남성의 권위나 영역을 침범하는데 대한 적대적 감정이라 할 수 있고,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전통적인 역할에 부합되는 여성들을 온정주의에 입각하여 애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호의적 감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rape myth)이란 주로 강간의 발생 등과 관련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로서, 핵심적인 부분은 ‘강간은 피해자 여성에 의해 유발된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저지르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것은 폭력행위를 남성의 본능으로 합리화하고, 강간범죄의 책임을 피해자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기능을 한다(이석재, 1999). 타인의 신체와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 행위를 이런 식으로 관대하게 해석하는 것은 현 사회가 전반적으로 폭력,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고 성(性)에 관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권리를 지지하며,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여성이 주로 피해자이고 약자가 되는 상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자들(예: Abrams, Viki, Masser, & Bohner, 2003; Begany & Milburn, 2002)은 일반인들의 성적 괴롭힘이나 강간에 대한 인식과 지각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로 성차별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적대적 성차별은 “나쁜 여자가 강간을 당한다”(Abrams et al., 2003, p. 112)는 일종의 공정한 세상의 신념이 내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차이가 지각자의 성차별 태도에 근거한다는 가정하에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구체적으로 남녀 청소년들의 성차별 태도와 강간통념 수용도 크기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크기를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지닌 성차별 태도가 강간통념을 매개로 하여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비난(피해자 책임 귀인 경향)을 초래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양가적 성차별 태도

성차별이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근거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률 및 행동으로 이는 사회적 관습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신념으로, 전통적 관념에 의해 여성들이 겪는 독특한 억압형태라 볼 수 있다(민경환, 1989). 여성들이 처한 불평등적 요소가 첨단 과학문명 시대를 자랑하는 오늘날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데에는 오랜 과거부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사회구조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식의 영향이 크다.

많은 관련 연구자들은 여성을 비롯한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이 부정적 고정관념의 그릇된 일반화에 근거한 적대감 때문이라고 가정하고 있다(예: Allport, 1954; Devine & Elliot, 1995). 편견에 대한 심리학 분야에서 표준적인 모델은 그것이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에 근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편견의 근간에 적대감이 존재한다는 인식은 인종차별 연구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며 여성에 대한 편견인 성차별주의(sexism)에 관한 연구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편견을 적대감 차원으로만 이해하려는 초기 입장에 비해 최근의 연구들은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

고 있다(Jackman, 1994; Fiske, Xu, Cuddy, & Glick, 1999).

Glick과 Fiske(1996)는 인종차별적 편견이 사회적 거리나 부정적 고정관념 등으로 측정될 수 있는 적대감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성차별은 인종차별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성차별주의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적대감이라기보다는 질서와 애정이 뒤섞인 양가적인 속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은 과거나 현재 모두 남성들에게 폄하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호와 흠모의 대상이기도 하였다(Eagly & Mladinic, 1993; Guttentag & Secord, 1983; Tavris & Wade, 1984). 이와 같이 여성에 대한 남성의 태도는 한편으로는 적대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온정적 태도를 동시에 지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외형상 여성에 대한 호의적 형태를 띄고 있는 온정적 성차별 태도도 역시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를 고착시키고 이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여성편견으로 볼 수 있다.

Glick과 Fiske(1996, 2001)는 성차별주의가 강한 양면성을 지닌 독특한 종류의 편견이라고 가정한다. 그 중 하나는 남성들은 여성이 남성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려 든다거나 남성에게 비합리적 요구를 한다는 인식에 따른 부정적 태도로서 이는 적대적 성차별주의 태도의 근간이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이 여론운동이나 성적 매력을 이용해서 기존 남성의 지위와 권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적대적 성차별을 지닌 남성은 여성이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 경제적 및 정치적 기관들에서 큰 권력을 차지하는 데에 부적합하다는 신념을 지니는 경향이 있다.

한편 다른 하나는 남성들이 여성과 이성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 의존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보호적 관심과 보완적인 성역할 기대, 친밀감 등으로 이루어진 온정적 성차별 태도이다.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는 여성을 전통적인 고정 관념적 시각으로 보며 가사일과 같은 제한된 역할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역시 차별적이다. 그러나 이들이 주관적으로 여성에게 느끼는 감정은 긍정적이며 여성을 돕는 친사회적 행동이나 여성에게 친밀성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기 쉽다.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비해서는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짐에도 불구하고 온정적 성차별주의 역시 사회구조적 성불평등에 대한 여성의 저항을 누그러뜨림으로써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보완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결국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고, 부양자로서의 과중한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지배논리를 은연중에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기존의 남성위주의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비전통적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을 우대하는 태도인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보다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의 성차별로서 전통적 역할을 유지하는 여성에 대해 보상을 주고 칭찬함으로써 기존의 남성 지배의 권력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이 적대감과 온정적인 태도가 공존하는 양가적 특성을 지닌다는 Glick과 Fiske(1996)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은 성에 대한 편견이나 성차별 연구에서 비교적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brams et al., 2003; Brannon, 2005; MacDonald & Zanna, 1998; Masser & Abrams, 1999). 특히 오늘날의 성차별주의의 양상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되던 과거에 비해서 보다 은밀하고 간접적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두 종류의 성차별이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각기 다른 양상으로 기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두 가지 각기 다른 성차별 태도의 기능적 차별성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강간통념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rape myth)이란 주로 강간의 발생에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강간통념 중 하나는 ‘강간은 피해자 여성에 의해 유발된 성 충동을 남성이 억제하지 못해 저지르는 행위’라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충격적이다. 이 조사에서 한국 남성 범조인의 60% 이상이 ‘여성의 야한 의상이 성범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구지역 중.고교생 2명 중 1명은 여성의 야한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5월 대구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간 대구지역 12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통념 등 성의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58.2%가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고 답했다. 또 학생 중 38.2%는 ‘남성의 성충동은 본능적이어서 자제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여자가 순결을 지키는 것은 당

연하다'는 응답이 64.1%로 남자의 순결 의무를 당연시하는 의견 52%보다 많았다(한겨레 인터넷 신문, 2005. 5. 29.).

이같이 우리 주변의 만연된 강간통념은 성폭력 행위를 남성의 본능으로 합리화하고, 강간범죄의 책임을 피해자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기능을 한다. 타인의 신체와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 행위를 이런 식으로 관대하게 해석하는 것은 현 사회가 전반적으로 폭력,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고 성에 관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권리를 지지하며,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여성이 주로 피해자이고 약자가 되는 상황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강간통념들은 성에 대한 남성 위주의 시각과 폭력행위의 허용성 등과 같은 현 사회의 모순적 이념체계를 반영하고 있다(이석재, 1999).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강간통념은 주로 남성들의 수용도가 높았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다(예: 고재홍, 지영단, 2002; 이진호, 강혜자, 2005; 이석재, 1999). 뿐만 아니라 남성중에서도 강간통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성폭행 경험이 더 많았고, 성폭행 사건을 왜곡되게 지각하였다. 이는 남성 지배적인 유교문화권에서 남성이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남성 중심의 성적 가치를 내재화하였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이석재, 최상진, 2001).

특히 청소년들은 음란물 접촉을 많이 할수록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재홍과 지영단(2002)의 연구에서도 남녀 학생 모두에서 음란물에 많이 접촉한 학생일수록 성지식이 낮았고, 음란물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었다. 또한 이들의 강간통념 수용도도 높았다. 이와 같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

성되고 유지되는 강간에 대한 통념은 남녀의 비대칭적 성 사회화(sexualization) 과정을 통해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합리화, 이중적인 성 규범 등과 더불어 개인들에게 내면화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의 구성원들은 사회화과정, 특히 성사회화 과정을 통해, 남녀 비대칭적 성문화를 포함하는 성차별, 성폭력 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에 기초하여 폭력과 성차별을 함축하는 강간에 대한 통념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것이다(이석재, 최상진, 2001). 결국 사람들이 지닌 강간통념은 사회화 과정에서 잘못 학습된 여성에 대한 적대적 성차별 태도의 산물일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비난

공정한 세상의 신념에 근거한 피해자 비난 현상은 불행한 사건의 발생에서 그 역경이나 불운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 쪽으로 돌리는 경향을 말한다(Lerner, 1980). 실제로 이러한 피해자 비난현상은 비난의 대상이 명백한 강간피해자의 경우에서도 나타난다(Carli, 1999). 예를 들어 강간을 당한 여자가 꼬리를 치고 다니는 식으로 행동했음에 틀림없고,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현상이다. 여성의 특성들은 특히 강도나 강간과 같은 피습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그들은 너무 수동적이거나, 부주의하거나, 남을 쉽게 믿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 같다.

논리적으로 볼 때,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이 보편적 상식일 것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 캠퍼스에 비치되어 있는 한 교육안내서에는 성폭력이 "언제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결코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이나 피해자가 있는 장소, 또는 하고 있는 행동과 무관하다"고 못 박고 있다. 이 안내서는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사건의 모든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심지어 피해자들 자신까지도 불행한 일의 발생을 피해자 자신에게 탓을 돌린다. 실제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가해자의 차에 편승했거나, 아파트 창문에 열쇠를 채우지 않고 내버려 둔 것 등과 같이 자신이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Janoff-Bulman, 1979).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성폭력사건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면, 여성 스스로가 끊임없이 경계심을 지녀야 하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무모한 생활방식을 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Howard, 1984).

이런 피해자 비난 현상은 강간과 같은 성폭력 사건에서 사회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많은 범죄를 용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낮추는 기능을 하고 있다(권희경, 장재홍, 2003). 이는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초래하여 성폭력과 범죄 예방에 지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판결에서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관대하다. 예를 들어 2005년 3월 28일 서울고법 형사 4부 엄상필 판사는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 했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 강간 아니다." 라고 판결하였다(한겨레신문, 2005. 3. 30). 이는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 판결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사해 준다.

피해자 비난현상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Carli, 1999)

로 볼 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단순히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폭력 피해자 비난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많이 소유한 강간통념(고재홍, 지영단, 2002)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강간통념의 많은 내용들이 강간과 같은 성폭력의 원인 소재를 피해자 측에 전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책임귀인과 비난(혹은 처벌)은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고재홍, 1996) 강간통념이 많이 지닌 사람들이 성폭력 피해자 비난도 클 가능성이 있다. 즉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성차별적 태도를 지니고 있고, 이런 태도에 따라 강간통념이 다르고, 이는 궁극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크기차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 태도, 강간통념 및 (성폭력 사건) 피해자 비난 현상이 서로 유관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성차별 태도를 강간통념과 피해자 비난 현상의 가장 기저에 있는 개념으로 보았다. 이러한 성차별 태도가 잘못된 강간통념을 수용하도록 만들고, 다시 이것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 비난하도록 만든다고 예상하였다. 즉 강간통념이 성차별 태도와 피해자 비난 현상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물음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청소년의 양가적 성차별 태도, 강간통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양가적 성차별 태도, 강간통념 수용도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가적 성차별 태도와 성폭력 피해자 비난 현상의 관계에서 강간통념이 매

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및 절차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임의로 표집된 창원지역에 소재하는 5개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61명(남학생 195명, 여학생 166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가상적인 두 성폭력 시나리오를 읽게 한 후 피해자에 대한 비난크기 등을 측정 한 후, 설문지 형태로 미리 준비된 양가적 성차별 태도 및 강간통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크기

본 연구에서 강간 피해자에 대한 비난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실제 일어난 강간사건을 각색하여 신문 기사처럼 만든 두 가지 사례의 시나리오를 읽도록 하였다. 두 가지 사례의 시나리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부산 ** 경찰서는 10월 10일 자신의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한 이**씨(21, 여대생)의 신고로 김**씨(24, 고시생)를 강간 및 폭행혐의로 구속 기소 중이다. 이양은 지난 8월 소개팅으로 만난 김씨와 두 달 가량 교제해 왔으며, 비디오방에서 처음으로 성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후 김씨는 이씨에게 성 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씨가 계속

거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씨를 1일 밤 11시 학교 앞 호프집으로 불러낸 후 같이 술을 마시고 이씨와 함께 나갔다. 김씨는 만취한 이씨를 인근 여관으로 끌고 가 얼굴과 가슴부위를 3차례 때린 후 성폭행한 혐의다. 이에 이씨가 계속 반항하자 친구인 윤**(24,남, 대학생), 최**씨(24,남, 대학생)를 모텔로 불러 이씨를 성폭행 하는 모습을 카메라 폰으로 찍게 하였고, 친구들에게도 차례로 성폭행을 하게 한 후 신고하면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였다. 이후 이씨 얼굴의 상처를 의심한 부모의 추궁으로 먼저 사건을 듣게 되고 이씨의 부모가 김씨를 추궁, 범행결과를 자백 받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시나리오 2

박 모 씨(20,여, 대학생)는 모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최 모 씨(30,남, 무역업)를 강간혐의로 고소하였다. 이들은 채팅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까지 알게 되고, 전화로 안부를 묻고 메일을 주고받는 등, 실제적인 만남은 없었지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최씨는 박씨에게 실제로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박씨는 처음엔 망설였으나, 2개월간 채팅을 통해서 최씨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지난 10일 해운대 00 호텔 커피숍에서 미팅을 하게 되었다. 둘은 얘기를 나누고 00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술을 마셨으며, 박 모 씨가 술에 취해서 의식이 없는 틈을 타서 00 호텔 룸으로 데리고 갔고, 성폭행을 하였다. 박 모 씨는 의식을 차리고 저항을 하였지만 최 모 씨

는 “번개탕으로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면서 왜 그러느냐? 너도 알면서 이곳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협박하며 2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하였다. 최 모 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대학원까지 마친 엘리트로 이러한 수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5명을 성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성폭행 피해자 중 3명은 대학생, 2명은 고등학생이었다.

응답자들은 위와 같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각각 읽고 성폭력 피해자의 성폭력 발생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를 “책임이 전혀 없다(1)” - “전적인 책임이 있다(5)” 사이의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행동이 얼마나 비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전혀 비난받지 않아야 한다(1)” - “전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5)” 사이의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최대한 가벼운 처벌(1)” - “최대한 무거운 처벌(5)” 사이의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주 종속변인인 피해자의 비난크기는 두 사례의 피해자 비난크기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r=.83$)에 이들을 평균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양가적 성차별 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의 양가적 성차별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Glick과 Fiske(1996, 2001)의 양가적 성차별 태도척도를 근거로 안상수, 안미영 및 김혜숙(2005)이 제작된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측정하는

18개 문항과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측정하는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측정하는 문항의 예들은 “여성들은 평등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남성 이상의 특별대우를 요구한다”, “여성은 성적으로 순진한 척 해서 남성이 매달리게 만든다”, “남자의 권위가 여자보다 큰 가정이 안정적이다” 등이다. 한편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측정하는 문항의 예들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길을 걸을 때 여자를 안전한 인도 쪽으로 걷게 해야 한다”, “남자에 비해 여성은 문화적으로 더 세련된 취향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많은 여성들은 남성에게는 거의 없는 순수함을 지니고 있다” 등이다.

응답자들은 각 개별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안상수 등(2005)이 보고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산출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α)는 온정적 성차별주의 척도가 .85이었고, 적대적 성차별주의 척도가 .86이었다.

강간통념 척도

강간통념의 수용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이석재(1999)가 제작한 강간통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강간과 관련된 잘못된 신념을 담은 2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강간을 당하는 여성은 대개 이전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 “성욕이 왕성한 여자들이 대개 강간을 당한다”,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도 허락한다는 뜻이다” 등이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강간통념

문항에 대해 “매우 부정”(1점) - “매우 긍정”(9 점) 사이의 9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척도 값이 클수록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수용하는 것이다. 고재홍과 지영단(2002)이 중고생을 대상으로 산출한 강간통념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들로 산출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α)는 .92이었다.

결 과

청소년의 양가적 성차별 태도

남녀학생들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하위척도인 적대적 성차별 태도와 온정적 성차별 태도 평균을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남녀학생의 두 가지 성차별 태도 크기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성(2)×태도종류(2) 이원 변량분석하였다.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먼저 성(남학생/여학생)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1, 359)=88.62, p<.01$. 이는 전체적으로 남학생($M=3.28$)이 여학생($M=2.85$)보다 더 높은 성차별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성차별 태도 차원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1, 359)=225.02, p<.01$. 예상대로 두 성차별 태도 중에서도 적대적 성차별 태도($M=2.82$)보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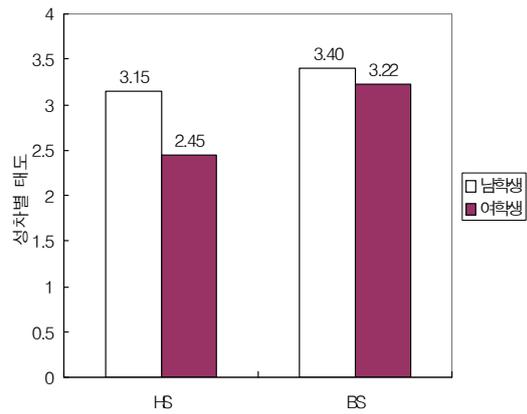


그림 1. 성별과 성차별 태도간의 관계

온정적 성차별 태도($M=3.31$)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남학생/여학생)과 성차별 태도(적대적 성차별 태도/온정적 성차별 태도)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1, 359)=53.43, p<.01$. 이 상호작용의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이를 사후검증(LSD)한 결과, 그림 1에서 보듯, 적대적 성차별 태도에서는 남학생($M=3.15$)이 여학생($M=2.45$)보다 성차별적 태도를 더 많이 지니고 있었지만, $F(1, 359)=163.84, p<.01$, 온정적 성차별 태도에서는 남학생($M=3.40$)이 여학생($M=3.22$)보다 약간 높은 성차별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F(1, 359)=10.00, p<.01$. 즉 여학생들은 여성에 대해 비우호적인 적대적 성차별주의 문항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표 1. 성별에 따른 양가적 성차별 태도의 평균

| | 남학생 | | 여학생 | | 전체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적대적 성차별 태도 | 3.15 | 0.35 | 2.45 | 0.38 | 2.82 | 0.26 |
| 온정적 성차별 태도 | 3.40 | 0.04 | 3.22 | 0.04 | 3.31 | 0.03 |
| 전 체 성차별 태도 | 3.28 | 0.03 | 2.85 | 0.03 | | |

성차별 태도 점수는 1점-5점까지 범위이며 수치가 클수록 해당 차원의 성차별 태도가 큰 것임.

않은 반면, 은밀한 온정적 성차별주의 문항들은 표면적으로 여성을 보호하고 우호적인 듯이 지각될 수 있으므로 기저에 깔린 고정관념이나 편견적 내용들을 간파하지 못하고 남학생과 비등한 정도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온정적 성차별 태도에 대해서는 여학생들도 상당히 여성 차별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강간통념 수용도

강간통념의 수용크기에서 성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F(1, 358)=69.56, p<.001$. 예상대로 남학생($M=3.93$)이 여학생($M=2.7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강간통념이 폭력행위를 남성의 본능으로 합리화하고, 강간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현사회의 모순적 이념체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책임과 비난 및 가해자 처벌 크기

표 2는 성별에 따른 두 성폭력 사건 시나리오를 읽고 응답자들이 평정한 피해자 책임과 비난 및 가해자 처벌 크기의 평균이다.

청소년에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표 2. 성폭력 피해자 책임과 비난 및 가해자 처벌 크기의 평균

| | 피해자 책임 | | 피해자 비난 | | 가해자 처벌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남학생 | 2.35 | 0.72 | 2.33 | 0.80 | 4.24 | 0.69 |
| 여학생 | 1.94 | 0.61 | 2.04 | 0.72 | 4.55 | 0.59 |

주. 평균은 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처벌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자 책임과 피해자 비난, 및 가해자 처벌 크기가 다르게 어떻게 지각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간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책임은 성별에 따라 유의하였다, $t(359)=5.79, p<.01$. 이는 남학생($M=2.35$)이 여학생($M=1.94$)보다 성폭력 사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 비난은 성별에 따라 유의하였다, $t(359)=3.52, p<.01$.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남학생($M=2.33$)이 여학생($M=2.04$)보다 피해자 비난을 더 높게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처벌은 성별에 따라 유의하였다, $t(359)=4.19, p<.01$. 이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여학생($M=4.55$)은 남학생($M=4.24$)보다 가해자에게 더 큰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다.

성차별 태도, 강간통념 및 성폭력 피해자 비난간의 관계

청소년의 성차별 태도, 강간통념 및 성폭력 피해자 비난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3이다.

온정적 성차별 태도는 적대적 성차별 태도($r=.354$)와 강간통념($r=.256$)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온정적 성차별 태도가 큰 사람일수록 기존의 성차별 태도인 적대적 성차별 태도도 크며, 잘못된 강간통념 수용도도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온정적 성차별 태도는 피해자 책임($r=.106$)과 피해자 비난($r=.141$)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가해자 처벌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한편 적대적 성차별 태도는 강간통념과는 높은 정적 상관($r=.581$)을 나타내었다. 이는 적대적 성차별 태도를 크게 지닌 학생일수록 강간통념

표 3. 성차별 태도, 강간통념 및 종속변인들간의 상관계수

| | 적대적 성차별 | 온정적 성차별 | 강간통념 | 피해자 책임 | 피해자 비난크기 |
|---------|---------|---------|---------|---------|----------|
| 온정적 성차별 | .354** | | | | |
| 강간통념 | .581** | .256** | | | |
| 피해자책임 | .333** | .106* | .429** | | |
| 피해자비난 | .263** | .141** | .423** | .679** | |
| 가해자처벌 | -.224** | -.046 | -.284** | -.266** | -.174** |

* $p < .05$, ** $p < .01$

수용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대적 성차별 태도는 피해자 책임($r=.333$)과 피해자 비난($r=.263$)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가해자 처벌($r=-.224$)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적대적 성차별 태도를 크게 지닌 학생일수록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많이 부여하고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작았다.

강간통념은 피해자 책임($r=.429$)과 피해자 비난($r=.423$)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가해자 처벌($r=-.284$)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책임과 비난을 크게 하였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작게 한다는 의미이다. 가해자 책임은 가해자 비난과 유의한 정적 상관($r=.679$)을 나타내었고, 가해자 처벌($r=-.266$)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크게 할수록 피해자에게 비난을 크게 지각한다는 것이고, 반면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작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 비난은 가해자 처벌과 유의한 부적 상관($r=-.174$)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비난을 크게 할수록 가해자에게 처벌을 작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온정적 성차별 태도와 피해자 비난간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책임과 피해자 비난간의 상관($r=.68$)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 중 피해자 비난을 종속변인으로 한 매개분석만을 하였다. 즉 양가적 성차별 태도를 독립변인, 피해자 비난크기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그 사이에 강간통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변인 분석법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Baron 등(1986)에 따르면 매개변인(mediator)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를 매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네 단계의 분석을 해야 한다. 먼저 (1)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하고, (2)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한다. (3)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4)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도록 하는 회귀분석에서는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하면서 (1)의 독립변인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줄어들어야 한다.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독립변인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는 큰 것이며, 0이 되면 완전한 매개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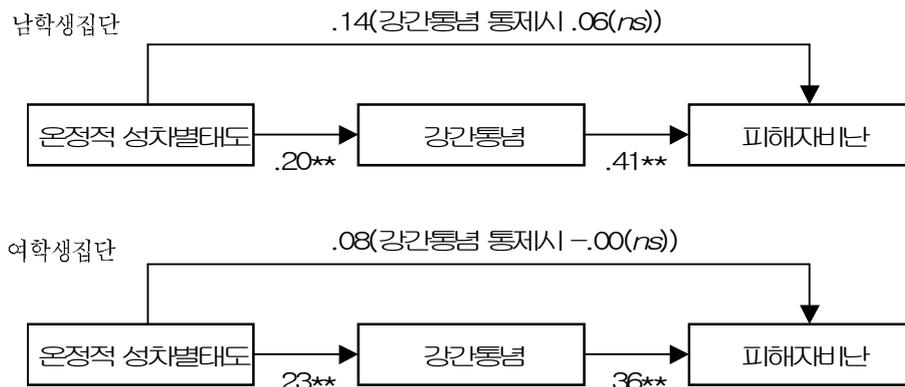


그림 2. 온정적 성차별 태도와 성폭력 피해자 비난간 강간통념의 매개변인의 분석결과
(수치는 β , $**p < .01$)

있다(Kenny, 2005 참조). 그러나 매개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인으로 종속변인을 예언하는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하게 줄어든다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Sobel 검증(1982)을 사용하였다.

두 종류의 성차별 태도 모두에서 강간통념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두 성차별 태도별로 매개효과 검증을 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온정적 성차별 태도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크기 간 관계에서 강간통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매개분석을 위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의 요약이 그림 2이다.

그림 2의 남학생집단과 여학생집단에서 보듯,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그들의 온정적 성차별 태도는 강간통념과 정적 관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강간통념도 피해자 비난을 유의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남학생 $\beta = .20$, $\beta = .41$, $p < .01$; 여학생 $\beta = .23$, $\beta = .36$,

$p < .01$), 온정적 성차별 태도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크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남학생 $\beta = .14$, ns; 여학생 $\beta = .08$, ns). 그러므로 온정적 성차별 태도는 강간통념을 매개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크기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었다.

적대적 성차별 태도와 피해자 비난간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두 성차별 태도 중 적대적 성차별 태도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크기 간 관계에서 강간통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매개분석을 위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의 요약이 그림 3이다.

그림 3의 남학생집단에서 보듯, 첫째 적대적 성차별 태도는 피해자 비난을 유의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0$, $p < .01$). 이는 적대적 성차별 태도를 크게 지닌 남학생일수록 성폭행 사건 발생시 피해자를 더 많이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적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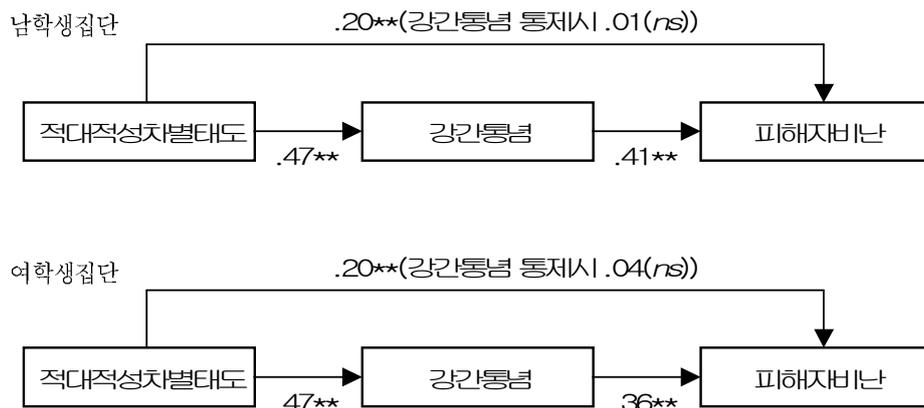


그림 3. 적대적 성차별 태도와 성폭력 피해자 비난간 강간통념의 매개분석 결과
 (수치는 β , ** $p < .01$)

성차별 태도는 매개변인으로 상정한 강간통념 수용도를 유의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7$), $p < .01$. 이는 적대적 성차별 태도가 큰 남학생일수록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셋째, 강간통념 수용도는 피해자 비난을 유의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1$), $p < .01$. 이는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은 남학생일수록,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여성을 더 많이 비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강간통념 수용도 효과를 통제한 다음, 적대적 성차별 태도로 피해자 비난을 예언한 회귀분석에서 적대적 성차별 태도는 피해자 비난을 유의하게 예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1$), $p = .93$.

Soble의 제안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에서도 강간통념은 적대적 성차별 태도와 성폭력 피해자 비난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 = 4.70$, $p < .01$. 따라서 예상대로 강간통념은 적대적 성차별 태도와 피해자 비난 사이에서 강력한 매개변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여학생집단의 분석에서도 남학생집단의 분석결과와 유사하

였다. 즉 여학생집단의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Z = 4.04$, $p < .01$. 따라서 강간통념은 여학생의 적대적 성차별 태도와 피해자 비난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로 볼 때, 남녀 학생 모두에서 적대적 성차별 태도를 지닐수록, 그들은 강간통념을 수용하는 정도가 크고,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논의

현대 사회는 남녀 차별없이 자기의 능력, 적성 및 개성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요구의 원만한 수행에는 양성평등이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청소년도 여전히 과거와 같은 성차별 태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오늘날 성폭력 사건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상당한 부분의 성폭력이 청소년들에게서 발생한다(권희경, 장재홍, 2003)는 최근의 추세로

불 때 성폭력의 문제를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주제가 서로 관련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청소년의 양가적 성차별 태도와 강간통념 및 피해자 비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성차별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두 성차별 태도 중에서도 적대적 성차별 태도보다는 온정적 성차별 태도가 더 높았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들(예: 김혜숙, 안상수, 안미영, 고재홍, 이선이, 최인철, 2005; 안상수 등, 2005)과 일치하는 것이며,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적대적 성차별 태도는 점차 약해지고 있는 반면, 예전보다는 교묘한 형태의 변화된 성차별주의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 연구들(예: Devine & Elliot, 1995)의 증거이다. 또한 적대적 성차별 태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매우 높은 성차별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지만, 온정적 성차별 태도에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여성들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의 은밀한 성차별주의가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강간통념의 수용크기에서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예상대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강간통념 수용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기존에 서로 다른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결과들(예: 고재홍, 지영단, 2002; 이건호, 강혜자, 200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예상대로 성폭력 사건의 지각에서도 피해자 책임과 비난 및 가해자 처벌크기도 성별에 따라 모두 유의하였다. 즉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피해여성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더 크게 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더 작게 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양가적 성차별 태도, 강간통념 및 성폭력 피해자 비난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온정적 성차별 태도가 큰 사람일수록 기존의 성차별 태도인 적대적 성차별 태도도 크며, 잘못된 강간통념 수용도도 높았다. 또한 온정적 성차별 태도는 피해자 책임과 피해자 비난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적대적 성차별 태도는 강간통념과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대적 성차별 태도를 크게 지닌 학생일수록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다는 것이다. 즉 적대적 성차별 태도를 크게 지닌 학생일수록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책임과 비난을 크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온정적 성차별 태도 및 적대적 성차별 태도와 성폭력 피해자 비난간의 강간통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먼저 온정적 성차별 태도에서는 강간통념이 성폭력피해자 비난간의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즉 온정적 성차별 태도는 강간통념을 매개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크기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적대적 성차별 태도에서는 강간통념이 성폭력 피해자 비난간의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적대적 성차별 태도가 클수록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고,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여성피해자를 더 많이 비난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 태도가 강간통념보다 사회화 과정에서 더 빠른 시기에 습득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성차별 태도와 강간통념은 모두 지각자가 지닌 인지로서 성차별 태도가 강간통념과 피해자 비난 사이에서 매개변인 역할을 한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공변량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이

가능성을 검증해 보았다. 즉 성차별 태도 → 강간통념 → 피해자 비난 모형을 살펴본 결과, 전체 모형의 부합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8.70$, $df=7$, $p=.27$, $PMSEA=.026$). 반면 대안모형으로 볼 수 있는 강간통념 → 성차별 태도 → 피해자 비난 모형을 살펴본 결과, 전체 모형의 부합도가 낮은 모형으로 나타났다($\chi^2=22.94$, $df=7$, $p=.002$, $PMSEA=.080$). 구체적으로 남학생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 태도와 적대적 성차별 태도가 모두 강간통념과 성폭력 피해자 비난크기 사이에서 매개변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두 매개변인 통제전 $\beta=.41$ → 통제후 .40). 또한 여학생의 경우도 온정적 성차별 태도와 적대적 성차별 태도가 모두 강간통념과 성폭력 피해자 비난크기 사이에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매개변인 통제전 $\beta=.36$ → 통제 후 .36, $\beta=.36$ → .34). 그러므로 강간통념 → 성차별 태도 → 피해자 비난 모형보다는 본 연구에서 가정된 성차별 태도 → 강간통념 → 피해자 비난 모형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차별 태도와 강간통념을 한 사람이 지닌 성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차원의 태도로 본다면, 강간통념이 성차별 태도와 피해자 비난간에 조절변인(moderator)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²⁾.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온정적(혹은 적대적) 성차별 태도와 강간통념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상호작용 항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온정적 태도인 경우, $b=.062$, ns ; 적대적 태도인 경우, $b=.029$,

ns). 그러므로 강간통념은 두 성차별 태도와 피해자 비난 사이에서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이 여성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성차별 태도 중에 적대적 성차별 태도가 기존의 남성위주의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비전통적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면, 온정적 성차별 태도는 여성을 우대하는 태도인 듯이 보이지만, 실상보다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의 성차별 태도로 전통적 역할을 유지하는 여성에 대해 보상을 주고 칭찬함으로써 기존의 남성 지배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하므로 여전히 성차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적대적 성차별 태도뿐만 아니라 온정적 성차별 태도도 사회구조적 불평등한 요소이므로 이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할 편견의 하나로 볼 수 있다(안상수 등, 2005).

한편 강간통념은 대부분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들로 구성되어 있고, 강간통념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실처럼 믿어지며, 강간통념을 수용함으로써 가해지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폭력행위를 남성의 본능으로 합리화하고, 성폭력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기능을 한다(Begany & Milburn, 2002). 이러한 맥락에서의 강간에 대한 통념은 성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남녀 비대칭적 성문화를 포함하는 성차별, 성폭력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성폭력과 성차별을 함축하는 강간에 대한 통념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Bohner & Schwarz, 1996). 본 연구에서도 특히 남학생들이 강간통념 수용가 높았으며,

- 1) 이 가능성을 지적해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 2) 강간통념이 조절변인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신 두 심사위원께서도 감사드린다.

이는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 지각(이석재, 최상진, 2001)과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강간통념의 수용정도는 음란물과 같은 사회 환경(고재홍, 지영단, 2002)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관찰자는 물론 성폭력 피해자들도 사건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고 스스로 비난하고 자책하는 피해자 책임귀인 경향이 있다(Carli, 1999).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적대적 성차별 태도가 클수록, 강간통념 수용도도 크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로 성폭력 피해자의 책임을 더 크게 지각하고, 피해자에게 더 많은 비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온정적 성차별 태도도 클수록 강간통념 수용도가 크게 나타나고, 피해자 비난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강간통념을 매개로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없었다. 이는 적대적 성차별 태도와 온정적 성차별 태도가 중간 크기의 상관을 지니고 있으나 각기 다른 기능을 한다는 Glick과 Fiske (1996)의 주장에 대한 또 다른 타당화의 증거로 볼 수 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로 묘사한 본 연구와는 달리 Abrams 등(2003)의 연구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아는 사람인 경우 온정적 성차별 태도가 피해자 비난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낯선 사람인 경우 온정적 성차별 태도가 피해자 비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차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시나리오의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관계이외에도 또 다른 요인(예: 성폭행의 유형이나 피해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김현정(1998)은 성폭력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성차별 태도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추후연구에서는 성폭력의 유형을 성차별 태도와 피해자 비난간에 조절변인으로 설정하는 연구도 의미있을 것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비난을 포함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각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많은 개인차 변인(예: 권위주의 성격)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다(Begany & Milburn, 2002; Howard, 1984). 추후 연구에서는 이런 개인차 변인을 탐색하는 것도 의미있는 시도일 것이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성차별 태도, 강간통념, 성폭력 피해자 비난현상 등이 성폭력의 기저에 깔려 있다는 사실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폭력 예방행동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양성평등한 문화, 남녀의 성규범이 이중적이지 않은 문화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강간통념이 중요한 점으로 볼 때 청소년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올바른 사회적 풍토나 청소년의 성문화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성교육은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맞추어 그에 적절한 성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일생을 통해 계속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하루빨리 체계적인 성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성 태도를 지닌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재홍 (1996). 책임판단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1), 1-20.
- 고재홍, 지영단 (2002).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과 잘못된 강간통념 수용간의 매개변인과 조정변인의 역할. 청소년상담연구, 10(1), 87-105.
- 권희경, 장재홍 (2003). 청소년 성피해자들의 성폭력 인식과 자기손해적 성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35-47.
- 김현정 (1998). 여성에 대한 남성의 동기와 성적 괴롭힘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1), 133-147.
- 김혜숙, 안상수, 안미영, 고재홍, 이선이, 최인철 (2005).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 하위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3), 117-133.
-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 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 146-168.
-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39-66.
- 이건호, 강혜자 (2005).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 태도 및 음란물 접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3), 23-40.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31-148.
- 이석재, 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 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97-116.
- 한겨레 인터넷 신문(2005. 3. 30.). “필사의 저항’ 없으면 성폭행 아니라고”?
- 한겨레 인터넷 신문(2005. 5. 29.). 대구 중고생 58%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 유발”.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Addison-Wesley.
- Abrams, D., Viki, G. T., Masser, B., & Bohner, G. (2003). Perceptions of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The role of benevolent and hostile sexism in victim blame and rape procl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11-12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gany, J. J., & Milburn, M. A. (2002). Psychological predictors of sexual harassment: Authoritarianism, hostile sexism, and rape myth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3*, 119-126.
- Bohner, G., & Schwarz, N. (1996). The threat of rape: Its psychological impact on non-victimised women. In D. M. Buss and N. Malamuth (Ed.), *Sex, power, and conflict: Evolutionary and feminist perspectives*(pp. 162-175).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rannon. L. (2005). Gender stereotypes: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L. Brannon (4th ed.), *Gender: Psychological perspectives* (pp. 159-185). ML: Allyn & Bacon.
- Carli, L. L. (1999). Cognitive reconstruction,

- hindsight, and reaction to victim and perpetrato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966-976.
- Devine, P. G., & Elliot, A. J. (1995). Are racial stereotype really fading?: The Princeton triology revise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1139-1150.
- Eagly, A. H., & Mالدinic, A. (1993). Are people prejudices against women? Some answers from research on attitudes, gender stereotypes, and judgments of competence. In W. Stroebe & M. Hewstone (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5, pp. 1-35). NY: Wiley.
- Fiske, S. T., Xu, J., Cuddy, A. M., & Glick, P. (1999). (Dis)respecting versus (dis)liking: Status and interdependence predict ambivalent stereotypes of competence and warmth. *Journal of Social Issues*, 55, 473-489.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91-512.
- Glick, P., & Fiske, S. T. (2001). An ambivalent alliance: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s complementary justifica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 109-118.
- Guttentag, M., & Secord, P. (1983). *Too many women?* Beverly Hills, CA: Sage.
- Howard, J. A. (1984). Societal influences on attribution: Blaming some victims more than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494-505.
- Jackman, M. R. (1994). *The velvet glove: Paternalism and conflict in gender, class, and race relatio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noff-Bulman, R. (1979). Characterological versus behavioral self-blame: Inquiries into depression and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798-1809.
- Kenny, D. A. (2005). <http://davidakenny.net/cm/mediate.htm>
- Lerner, M.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fusion*. NY: Plenum.
- MacDonald, T. K., & Zanna, M. P. (1998). Cross-dimension ambivalence toward social groups: Can ambivalence affect intentions to hire feminis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427-441.
- Masser, B., & Abrams, D. (1999). Contemporary sexism: The relationships among hostility, benevolence, and neo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3, 503-517.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 290-312).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Tavris, C., & Wade, C. (1984). *The longest war* (2nd ed.). San Diego, CA: Harcourt Brace Jovanovich.
- 1 차원고접수 : 2006. 2. 2.
심사통과접수 : 2006. 3. 25.
최종원고접수 : 2006. 3. 28.

The Relationships Between Ambivalent Sexism and Blame of Victim: The Role of Rape Myth

Byung-Hae Yun

Jaehong Ko

Kyungnam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ambivalent sexism, rape myth, and blame of victim. Three hundred and sixty-one high school students(195 male and 166 female) in Changwon read two kinds of rape case scenarios and evaluated the degree of responsibility and blame which they thought should be assigned to female victim, then responded to questions on an ambivalent sexism scale and a rape myth scale, respectively. Major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ale students scored higher on scales measuring sexism than females did. The averages for benevolent sexism in which a student considers women as an object of affection and protection were found to be higher than the degree to which male students reported feelings of hostility as a result of their perceptions of a female student's invasion of their authority. Furthermore, males scored higher for hostile sexism than females did. The differ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scores in terms of hostile sexism was much higher than in the case of benevolent sexism. Additionally, males were found to be more likely to accept rape myth than females did. After reading each case of rape, males tended to blame the victim more harshly, attributed more responsibility to her, and also tended to favor less severe punishment for the perpetrator than females did. Second, we studied role of rape myth between adolescents' sexism and blame of victim. Researchers found that the rape myth plays a role as a mediator. That is, adolescents scoring higher for sexism tended to accept the rape myth, and then to blame the victim more readily. Above all, it was concluded that the rape myth plays a role as a mediator only between hostile sexism and the tendency to blame the victim in female as well as male students.

key words : ambivalent sexism, benevolent sexism, hostile sexism, rape myth, blame of victim